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비전 2000운동 태동

'94 비전 2000운동이 오는 10월 2일 (주일)부터 50일간 전개된다. 「비전2000 운동」이란 21세기가 되기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자는 운동이다.

우리 교회는 1991년, 교회 창립에 앞서 7주간의 특별기도회를 통해 헌신을 다짐하였고 그 50일째 되는 11월 24일에 창립예배를 드린 바 있다. 그 후로도 해마다 교회 창립일 50일 전부터

전도와 기도로 이 운동에 참여해 왔다.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전도에 관한 특별 훈련과 실습을 할 뿐만 아니라 다락방 배가 운동, 잃은 양 찾기 등을 통해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민족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조국,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비전 2000운동」의 주요 내용이다. 교회는 '94 비전 2000운동이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참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흥정호

장로를 운동본부장으로 하고 각종 전략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다. 연초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70인 전도단의 활동과 이 운동을 잘 연계하면 은 교회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4 하반기 장학생 선발

- 오늘 찬양예배 시 장학금 수여식 -

천국시민 양성을 목표로 장학사업을 펴고 있는 장학회에서는 '94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하였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 중등부 / 김중화 백 훈 고동욱 김상호 이창구 이상완 김민경
곽소은 안상미 서현아
- 고등부 / 김경숙 서현진 정희진 신천규 김성진 윤학원 유혜진
주미영 오지영 박성희 김혜영 황혜원 김수현
- 대학부 / 박상훈 김민철 김대형 정성국 나소연 김 진 홍지민
손영희 김성규 권오철 이주은 원영선

◆ 살짝 옛본 풍경 ◆

교역자들이 손수 빗자루를 들고 ...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마치고 나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일정 구역을 책임지시고 청소를 시작하신다. 그간 몇 분의 집사님들이 자원하여 이 일을 하였으나 많은 성도가 다녀간 주일의 교회당을 깨끗이 하는 일은 몇 안되는 교회 직원과 자원 봉사자 몇 사람으로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모두가 교회당을 항상 깨끗이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 교회당의 모든 기물을 아끼는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할 우리 교구, 우리 부서의 교역자를 도와 우리도 빗자루를 들고 그 수고를 덜어드림은 어떨지.



- 1층 / 임진태 목사
- 2층 / 권상석 목사, 유순화 전도사
- 3층 / 김재호 목사
- 4층 / 원필현 목사
- 옥탑층 / 최병호 목사
- 지하층과 별관 / 장용휘 목사, 김주아 전도사

피택 집사, 권사 교육 재개

- 오는 9월 3일(토)부터, 장소는 전과 동일 -

지난 7월에 시작하였던 피택 안수집사와 권사 교육이 8월 한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된다. 이 교육의 주된 과목은 청지기의 부르심과 사명, 성경적 교회론, 예배, 기도, 주일성수, 봉사, 가정생활, 리더십 등으로 9월 3일(토)에 다시 시작하여 종합시험과 문답이 있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새벽에 실시한다. 장소는 변동없이 안수집사 교육은 4층, 권사는 3층 집회실에서 한다.



◆ 지난 주 고등부실에서 고3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한 기도결연예배가 있었다. 고등부실을 가득 메운 학부모와 기도결연자들은 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천국시민이 될 것을 기도하였다.

창세기
강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 ~ 20절)

이종운 목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출발을 하지만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의 여정에서 넘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직선만 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천대만상의 일들을 겪으면서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만은 하나의 궤도를 향하고 전진하고 상승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 환경에 따른 불신앙

믿음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수반하지만 불신앙은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났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이 닥친 것입니다. 수다한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 온 신앙의 장부 아브라함이 가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이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은유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주님이 굶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 위해 축복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자칫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셨습니다.

2. 예배가 없었던 불신앙

아브라함이 벨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향하여는 '내려갔다'는 표현만 있을 뿐 그의 삶

에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벨엘'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르게 됩니다. 믿음이 식으면 말씀 듣는 일을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기가 번거롭게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없었다는 것은 그의 넘어짐의 첫번째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최고의 정성과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3. 자기 교만에 의한 불신앙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 의지하기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기근을 핑계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합니다. 위험이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불순종은 죄를 가져오고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합니다. 자기 아내까지 저버리는 아브라함은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특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이 늘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네가 어찌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19절).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이방 사람에게까지 놀림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상처를 받고,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추방되는 치욕을 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야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벨엘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되어 있

습니다(13:4). 아브라함이 긴 세월동안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잠시있던 기근의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더욱 큰 믿음의 조상이라 칭송을 받았을 터인데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교훈삼아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거기서 실망하거나 넘어져서는 안되었습니다. 또 잘못된 자리에 빠졌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겸손히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자, 신실한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성공비결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계를 찾아오려고 이스라엘의 다윗왕은 세 수레를 만들고 삼만명의 정병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지파 중 고핫 자손만이, 그것도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도록 되어있었다. 목적이 선해야하듯 방법도 선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근일 우리 사회에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가고 있다. 그러나 천국은 거꾸로 가서는 들어갈 수 없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도중에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하자 옷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 그 일로 하나님은 그를 지셨다. 고핫의 자손일지라도 손댈 수 없는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이다. 열심은 좋으나 반드시 바른 지식을 동반해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 세대와 자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를 앞두고

◆목회자세미나 제 6학기를 기다리며

로마서와 고전을 재조명 할 10주간

김 정 덕 목사 (군포 엘림교회)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숨막히는 더위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서늘한 가을을 맞으면서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가 「경건과 교양」이라는, 듣기만해도 넉넉하고 맛갈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준비되었다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 1~4학기를 수강하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을 수료한 바 있는 저로서는 이번 학기에 거는 기대가 자못 새롭습니다. 폭주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텅 빈듯한 공허감과 내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칼 발트가 말한대로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실감합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은 필독해야 할 불후의 기독교 고전들을 엄선하여 각기 전문 석학들을 통해 그 핵심을 살펴 볼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유익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종운 목사님께서 그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강한 논리로 신약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로마서를 깊이 있게 강해하시게 된 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월요일마다 원근각저 동서사방에서 오실 동역자 여러분들과 이름없이 봉사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한국교회를 향한 이사와와 같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스텝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사랑의 빛, 기도로 갹으립니다.

이 해 선 전도사 (구로구 평화교회)

신학교 졸업 후 영적, 지식적으로 갈증을 느끼던 차에 신문에서 우연히 발견한 「목회자세미나」 광고를 보고 92년도의 첫 학기부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처음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조금 더 성실한 목회생활을 해야겠다는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세미나 기간동안은 신학교 다닐 때와는 색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고, 예전엔 성함만 들던 여러 강사분들을 직접 대하며 다양한 내용을 골고루 접할 수 있었으며, 비록 목회현장으로 돌아와 다 적용하지 못하고 이론과 실체가 연결이 잘 안되는 때도 더러 있었지만 많은 교역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만나 자극을 받던 월요일을 저는 늘 기다리곤 했습니다. 강의 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그들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점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6학기는 목회자들이 간과하기 쉽고 조금 더 알고 싶었거나 전혀 모르던 고전에 대해 다룬다고 하니 참신한 주제 선정에 자못 기대가 큼니다.

매학기 등록비 10,000원을 낼 때마다 조금 더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강의 뿐 아니라 교재며 간식까지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이름없이 빛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들을 뵈면서 가슴이 뭉클해져 그 사랑에 항상 빚진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간혹 땀흘려 봉사하시는 분의 안내를 잘 따르지 않거나 거스리는 목회자를 보면 내가 더 부끄럽기도하고 나 자신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 고마운 마음을 물질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빛을 갹을 수 없어 내가 선 목회현장에서 더 부지런히 섬기는 일과 내 조그만 사랑이 보탬이 되는 다른 곳을 찾아 함께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관이 되고 한국교회의 갹신과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목회자세미나를 위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헌신에 큰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갹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경향각지에서 오시는 목회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윤 찬 오 집사 (목회자세미나 봉사자)

공사간에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며 기다리던 제 6학기 목회자세미나가 드디어 다음 주간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들을 섬기시느라 피곤하실터인데도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배워야 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기차로, 고속버스로, 심지어 비행기로 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뵈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목회자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지며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것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시작한 지 어언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직 예배당도 짓지 못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연시킬 수 없다고 여겨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세미나를 시작했고, 전국에서 오시는 많은 목회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그 여섯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 갹신연구원의 목회자 세미나는 국제적으로도 확장되어 전세계교회의 영적인 입맛을 돋우워주는 김치(KIMCHI)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해 오면서 그 열매가 하나씩 보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더욱 힘써 봉사하려 합니다.

목회자세미나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봉사자들이 호소를 맞추어 일하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시며 격려해 주실 때마다 저희는 우리의 시간을 드려 헌신하는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한국교회의 갹신과 성장에 기여하게 되는 것같이 더욱 기쁨으로, 새로운 각오로 일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오시는 권사님, 직장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까지 하면서 봉사하러 오시는 남자 집사님들, 연속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후원하시는 많은 봉사자들 ... 저희 봉사자끼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저희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종들께 조금 더 기쁨진 것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간단한 것으로 밖에 대접해 드릴 수 없어서 늘 안타깝습니다.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목회자들을 뵈면서 빨리 성전도 짓고 좋은 교육시설도 갖추어서 오랜 시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안히 모시고 싶다는 조금한 마음도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YMCA 강당을 열기로 가득 메울 전국 목회자님들을 그리면서 목회자세미나 진행을 위한 세부적인 일들을 잘 점검하겠습니다. 주변에 갹신 동역자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권면하셔서 이번 학기에는 더 많은 분들과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창되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더 힘써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9월 5일 목회자 세미나 ■

· 개강예배 / 오후 2시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한태동 박사

◆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 - 민족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자신의 은사를 살려 작게라도 참여해 보자.

문의는 담당자에게나 총책임을 맡으신 홍정호 장로님, 유순화 전도사님께!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담당자 (문의)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김선미 권사님
강의안 편칭, 제본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한정아 집사님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김일용 집사님
식사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하나, 에스더 회원	최난수 권사님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 성도 다섯 분	이인근 집사님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성준경 집사님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 성도 여덟 분	이승우 집사님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김정희 집사님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분(3인 1조로 4조)	김연옥 집사님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유복한 집사님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 성도 한 분	김인숙 집사님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하나, 에스더 회원	김명숙 권사님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김일용 집사님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 성도 열 분	윤찬오 집사님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성준경 집사님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지하	남자,여자성도 각 세 분	김진달 집사님

◆ 몽골에서 온 편지

“몽골의 초대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로 계속 지원해 주세요”

황필남, 김말례 선교사 드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과 물질의 후원을 계속 해 주시는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투로 쫓기는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한 억압이 표면화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몽골교회에서의 저희 사역에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십니다. 저희의 최근 사역을 보고드리며 염치 불구하고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말부터 2개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필두로 중·고등부 수련회도 잘 마쳤습니다. 7월 18일부터 3박 4일간 청·장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240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말씀으로 훈련 받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렸으며 무엇보다도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계속되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몽골의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큰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이후 70명을 전도훈련 시켜 8월 1일부터는 18개 도시에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이 일은 8월 27일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이 많아 사단의 공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도대의 건강과 효과적인 사역, 안전사고와 재해에서 지켜 주실 것과 처음 복음을 받는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받은 이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 양육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전 한국에 가셨던 목사님을 통해 보내 주신 생활용품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승리의 보고를 드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94. 8. 2.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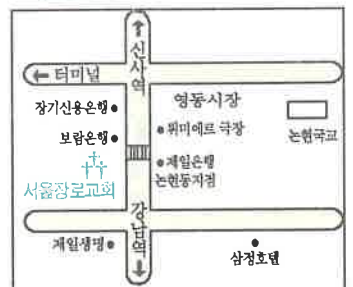
■ 목회자 동행 ■

이종운 목사는 오는 8월 29일(월)부터 9월 1일(목)까지 충남 천안 성결교회에서 천안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천안복음화대회」의 집회를 인도한다.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제 6학기목회자세미나를 잘 준비하여 이 일이 한국교회의 갱신에 기여하게 하옵시며 봉사자들에게 큰 힘을 허락하옵소서.
2.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강진함을 주옵소서. 환란 중에 있는 몽골교회가 날마다의 영적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